

건강 칼럼

“50세 이후 운명은 스스로가 결정한다” 건강하게 늙어가기

노 이복재법 노인의 기준은 65세다. 하지만 신체 기준은 60세 부터라고 한다. 미국의 한 대학은 최근 연구를 통해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나이를 60세, 65세라고 발표했다. 이제부터 주름뿐 아니라 균골격계, 뇌세포의 기능이 눈에 띄게 저하되고 름으로도 불편함을 자각하게 된다고 했다.

‘오로라게’ 그저 생명만 연장하며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자유롭게 이동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그리고 존중받으며 잘 사는 것 삶의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다. 노화를 막을 순 있지만, 최대한 미루고 행복하게 잘 살기와 존엄을 지키며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웰에이징(Well-aging)을 통한 성공 노화(successful aging)가 최근 노화의 기본 명제다.

나이가 들면 신체 구조비가 바뀐다. 70세가 되면 20대에 비해 수분·근육량·부기질은 감소하고 지방은 2배 이상 증가한다. 지방 분포도 미천하다. 피하지 않는 줄고 복부 내장지방은 늘어난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 침울도 늘게 되는데 개인의 건강 상태나 체질에 따라 노화의 과정이 빨리 오거나 늦게 올 수 있지만 하나도 없이 피하거나 쉽지 않다. 또 어느 순간 통증이 악진이나 사지마비나 외인증이라는 기관도 거의 할 수 없게 되고 늦추고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 목표가 된다. 진짜 늙어가는 것이다.

노화로 인해 심부전은 두꺼워지며 심방과 심실도 조급씩 커지는 등 문제가 생기면 고혈압, 심부전, 혀혈성 심질환, 부정맥 등 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 고혈압, 비만, 당뇨병 같은 질환을 이미 앓고 있는 경우라면 만성질환 자체가 심장에 영향을 끼쳐 만성 심부전을 유발하기도 한다.

아울러 나이가 들면 뇌신경 세포 수와 무게가 10% 정도 감소하고 뇌실이 커지게 되는데 결국 뇌혈관질환과 치매, 우울증,



서민석
가톨릭대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

심장 파킨슨병과 같은 다양한 신경계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천식·민성 폐기증·폐렴·폐암 등 폐질환, 팔다损증·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 신장 및 비뇨기계 질환 등 만성질환이 노년기 건강을 위협한다.

노인질환은 서서히 발생해 만성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질병의 초기 발견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치료와 기능 회복을 병행하고 만성질환으로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노인은 장기적인 치료 계획과 재활치료를 통해 지속해서 관리해야 한다.

국내 시장 원인의 약 80%를 암·순환기 질환·만성호흡기질환·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차지한다. 노인은 여기에 치매·퇴행성 관절염 등이 사망 원인으로 추가되고 삶의 질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물론 모든 만성질환을 반드시 사망에까지 이르는 것은 아니다. 만성질환을 알고 오랜 시간 건강하게 생존하는 예도 많다. 조기에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진단해 꾸준히 관리하고 규형 정밀 식사와 질환에 맞춘 운동을 통해 균형 감소를 늦출수록 만성질환은 있다라도 삶의 질이 낮아지거나 조기 사망에 이르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장수식단이란 것이 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비단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사는 아니다. 보니 지중해식뿐 아니라

피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 연구에서의 샘플 한식은 물에 말은 밭에 김치 한 조각 올려 먹는 밥상이 아닌 다양한 반찬이 고루 올려진 노동과 정성의 밥상입니다 기억해야 한다.

젊을 때 하는 운동은 물론 균형을 제자리에 아름나운 라인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높다. 하지만 노년의 운동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이름과 ‘생존 균형을 만드는 과정’이다. 빠나 관절을 감싸 외부의 충격에서 보호하고 심혈관의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균형은 나이가 들수록 유실되고 균형이 깊어지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운동의 강도보다는 횟수다. 균형을 수축·이완하는 스트레칭, 의사에서 일어나 앉기 운동이나 1kg 정도의 무게로 베티고 일어나 앉기 운동 정도 하면서 점차 횟수를 늘린다. 중장을 늘리거나 강도를 높이고 반복 횟수를 줄이면 노인에게는 특별한 이점 없이 부상 위험만 증가한다. 순진의 강도보다 횟수를 늘려 차곡차곡 꽂기를 권한다.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에 대한 균형의 저항이 가장 적어지는 운동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치 감각이 손상된 노인이 아닌 대부분의 노인에게는 유연성과 균형 운동이 균형 운동과 나상 예방 효과가 더 크다. 이러한 운동 역시 특정 질환자의 경우 전문의, 물리치료사, 전문 트레이너의 지도를 받아 운동량이나 시간 운동하는 법 등을 달리하는 것 이 좋다.

특히 겨울에는 애와 운동을 자제하고 모자를 쓰거나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권한다. “50세 이후의 운명은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말이 있다. 노화 자체를 부정하거나 인정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안정적인 일상과 금연·적절한 음주·규칙적인 운동·분수에 맞는 제2종 조절 등을 유지한다면 삶의 질이 높은 노년을 맞을 수 있다.

기고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당황하기 쉽습니다. 특히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대피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장비가 바로 ‘왕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유용한 장비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하지 못해 실제 화재 발생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일까요?

왕기는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주로 건물 내부에 설치된 안전 장비로, 벽이나 창문에 고정된 후 사용자 품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출을 타고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사용법만 잘 알고 있으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지만, 사용법

생명을 지키는 줄, 왕기 사용법



나형철

남원소방서 대응예방과 예방안전팀장

을 묘사해보니 오히려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울타리를 왕기 사용법은?

먼저, 창문의 안전장치를 풀고 개방한 뒤 왕기 지지대를 설치합니다.

왕기 함에서 속도조절기와 후크를 꺼내 연결한 뒤, 후크를 지지대에 걸고 나사를 끌어서 고정합니다.

안전벨트를 가슴 높이로 착용 후 고정장을 가슴쪽으로 꽂습니다.

어디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 후 힘으로 뛰어뜨립니다.

지지대를 청밖으로 이동한 뒤, 하반신이

황에 대비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정기적으로 왕기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이 어려운 경우 즉시 교체하거나 관리 주체에 연락하세요.

사용 중 절대로 출을 놓지 말고 천천히 내려와야 합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소에 화재 대피 요령을 숙지하고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의 사용법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왕기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장비입니다.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다면, 위급 상황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줄 왕기 사용법을 꼭 기억하세요.

사설

노인자원봉사 간담회 및 워크숍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 연합회가 지난 8월 20일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2024년 노인 지원 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 수행 기관·실무자 간담회 및 워크숍’을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수행 기관의 25명 실무자 및 관계자가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간담회와 워크숍에 참석한 이들은 2024년 노인 지원 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된 노인 지원 봉사단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그리고 노인 지원 봉사자 교육, 실무자 교육, 노인 일자리 업무 시스템 운영, 예산 집행 및 각종 홍보, 2024년 수행 기관 운영 평가 등 전반기 사업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후반기 사업 방향으로 수행 기관 운영비 및 봉사 활동 지원비 안내, 대한노인회 상반기 자체 현장 점검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제15회 소목서화 회원전

‘소목회전(素墨會展)’이라는 이름으로 뜻을 모아 시작된 전시가 벌써 열다섯 번째를 맞았다.

제15회 ‘소목서화 회원전’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전북예술회관 기획실 1실에서 열렸다.

소목서회는 소당 김연익 선생의 문하생들의 전시회다. 지난 2006년 제1회 소목회전으로 시작되어 올해 15회째를 맞고 있다.

예술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다. 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각자 간직한 소망과 열정은 반드시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다방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40여명 회원들이 노력한 작품 하나하나가 전시되었다.

이번 15회 소목서화 회원전 참여작가는 박병래·소목서화 회장과 회원 등 37인이다. 찬조 출품으로 소당 김연익 선생도 참여했다. 소당 김연익 선생은 대한민국 미술대전 고문으로 전라북도 예술상을 수상했다.

현재 전주에서 ‘소당 서화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이번

사회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빼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